아주IB투자

**PRESS RELEASE** **배포일자: 18.10.12**

# 아주IB투자(주), 상장예비심사 통과... 코스닥 상장 초읽기

▶ 11일 상장 예비심사 승인, 내달 코스닥 시장 입성 목표

▶ 압도적 펀드·AUM·수익성 확보한 초대형 VC 시장 입성... "VC 재평가 계기 될 것"

<2018-10-12> 국내 최초 VC '아주IB투자'의 코스닥 입성에 시동이 걸렸다.

**아주IB투자(대표이사 김지원)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상장을 추진한 다수 중소형 VC와 달리 오랜 투자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뛰어난 투자 성과를 보유하고 있는 아주IB투자가 코스닥 시장 입성이 가시화되면서 일각에서는 VC 시장의 분위기가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아주IB투자는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업력을 보유하고 있는 VC로 탁월한 펀드 청산 실적, 운용규모(AUM), 이익창출능력 등에서 압도적 성과를 자랑하는 대형 VC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28개 펀드를 청산한 바 있으며, AUM이 1조 4천억 원(2018년 9월말 기준)에 달하는 등 타 상장 VC와 체급 차이가 크다.**

특히 2014년 이후 꾸준히 1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을 지속 창출하며 탄탄한 수익성까지 확보했다. 이는 기존 시장에서 VC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실적 등 변동성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주IB투자가 이처럼 견고하고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배경에는 실적 변동성이 큰 VC 업계에서 45년간의 투자 경험 및 체계적인 투자·관리 시스템 등으로 차별화된 투자 노하우가 있었다.

**아주IB투자가 다른 VC와의 가장 큰 차별점은 해외 시장에서의 가시적 성과다. 지난 2014년 미국 보스턴에 사무소를 개설한 아주IB투자는 미국 진출 후 14개 기업에 투자해 그 중 11개 기업을 나스닥에 상장시켰고, 올 9월 말 기준 미주사무소 IRR(내부수익률)이 28%에 달하는 등 미국 바이오테크 VC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향후 아주IB투자는 IPO를 계기로 운용 규모를 확대해 투자와 이익을 동시에 극대화하는 동시에,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VC로 입지를 굳힌다는 계획이다.

IRKUDOS
Valuable IR Consulting

이에 대해 아주IB투자 김지원 대표이사는 "아주IB투자는 기업 규모, 내실 측면에서 타 중소형 VC와 큰 차이가 있어, 이번 아주IB투자의 코스닥 시장 입성이 국내 벤처캐피탈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IPO를 통해 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여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을 갖춘 VC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주IB투자는 빠르면 11월 내 코스닥 상장을 예정하고 있으며, 상장주간은 미래에셋대우와 대신증권이 맡고 있다.

**▣ 자료문의 : 아주IB투자 노영철 경영지원실장 (02-3451-9232) / 전상우 기획팀장 (02-3451-9293)**

**IR큐더스 한정선 매니저 (010-3686-2279) / IR큐더스 윤지희 책임 (010-7139-5888)**